

† 마데레스는 켈자라는 뜻의 헬라어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신자를 돕기 위해 발행됩니다 †

마데레스



표어 : 너나 잘하세요

은석교회는



구원은 우리의 확신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임을 믿기에
인간의 정함을 근거로
확인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온 명분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혼자 잘난 것처럼 하지
않고 함께한 형제를 돌아보며
변약한 형제의 짐을 함께
지면서 진리의 길로
나아가합니다.

나와 저 비교하니

신윤식

이 꽃 저 꽃 비교하니
이 꽃은 활짝 피고
저 꽃은 고개 숙이네.

이 별 저 별 비교하니
이 별은 빛나고
저 별은 초라해지네.

학벌을 비교하고
부를 비교하고
직장을 비교하니
이웃은 하나 둘 사라진다네.

나와 저 비교하니
때론 내가 더 나아보이지만
슬픔과 절망도 불러 들어
스스로 불행의 덫에 채이고
꽃처럼 별처럼 스러지게 한다네.

대한예수교장로회

은석교회

교회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국우동 1113-8

홈페이지 : <http://www.onlycross.net>

☎ (교회) 421-9049 (사택) 425-9049 (핸드폰) 010-5831-9049
(E-메일) sys5806@hanmail.net

발행인 신윤식 목사

발행일 2012.8.12

발행호수 제20권 33호

자 신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여느 사람들과 다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들의 신앙생활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같은 자부심과 자신감은 오히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을 뿐입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자기 신앙에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아닌 신앙이 좋은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또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가 베푼 잔치 자리에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을 **“너희가 어찌 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는 말로 비방을 합니다. 죄인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그들은 자신을 거룩한 의인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이들은 또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33절)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철저히 금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금식은 경건생활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더 철저한 경건을 위해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일을 정하여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잔치를 베푼 날이 금식일이었는지 요한의 제자와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는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요한의 제자들과 자신들의 제자들

주일오전설교
눅 5:33-39

복음에
어울리는 것

은 금식한다고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잘못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에서 드러난 바리새인과 서기관, 즉 자기 신앙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자기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과 비판을 일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천국과도 맞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천국을 지향하고 복음을 선포한다는 교회가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이 같은 행태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같은 잘못됨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이유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을 바라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교인들을 그 같은 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강조하며 실천을 요구하고, 실천이 있는 사람을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중심에 인간의 행위가 자리하면서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비방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됨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되 복음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십자가를 말하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람의 시선만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좋은 평가 받는 것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금식의 문제로 비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34, 35절)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대개 일주일 동안 베풀어졌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치러지는데 문제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결혼 잔치 기간에도 손님들에게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규례대로라면 잔치기간에도 금식일에는 금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잔치를 훼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

문에 잔치가 끝난 후에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금식의 의미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마치 그들의 신앙이 금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신앙적 문제점인 것입니다.

안식일이든 금식이든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하라고 하신 의미를 알지 못하면 내용은 사라지고 겉질만 남는 것이 되지만 바리새인들은 내용보다는 겉질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행위에 초점을 두게 되면 신앙은 항상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한 사람은 금식을 하지 않거나 그보다 적게 금식한 사람들보다는 분명 나아보이겠지만, 그보다 많이 금식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앞에서는 자신의 금식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더 나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금식을 더 많이 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신앙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게 되면 항상 비교와 함께 경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에 어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분명 자신을 바라보는 식의 신앙의 문제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의 행함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것이고 신앙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신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 자랑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 앞에서 주일성수, 금식, 기도, 십일조 등등의 자기 행함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멸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다는 자신의 행함에 더 가치를 두는 것일 뿐입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 자기 행함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에 어울리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 죄에 대한 고백과 함께 모든 죄를 대신 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

사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행하심만을 증거할 뿐 인간의 행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 복음에 가치 있는 인간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도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니며 다른 종교의 경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식은 밥은 먹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 58:6,7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찢어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사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금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이 귀에 익지 않습니까? 눅 4:18 절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셨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금식의 내용을 보면 금식으로 인한 자기 자랑과 비교와 경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와 함께 하고 그들을 돕고 나누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에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36절에 보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새 옷과 낡은 옷을 대비하여 말씀하고, 37,38절에서는 낡은 가죽부대와 새 포도주가 대비되어 등장합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부대를 율법에 치우친 유대주의로 생각하고, 새 옷 새 포도주를 예수님의 교훈, 즉 복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복음은 유대교의 율법적 교훈과 함께 할 수 없고, 또 어울리지도 않는 것임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는 말씀이

마치 새것보다는 옛것이 좋다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새 교훈, 즉 복음이 옛 것보다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오래 묵은 것이 맛있다고 합니다. 오래 묵을수록 맛있는 포도주라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새것은 당연히 오래 된 것보다 맛이 없다는 생각으로 멀리하는 인간의 습성을 빗대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래된 포도주가 맛이 있느냐 새 포도주가 맛이 있느냐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묵은 포도주가 낫다는 생각에 붙들려서 새 것을 배척하는 유대교의 형식주의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왜 행함의 문제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함에는 자기만족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성취가 있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교훈인 복음으로는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으로 증거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못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말하되 자기 증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하면 ‘아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그 어떤 행함도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얼굴을 찌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자기 행함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행함의 가치를 포기했을 때 누려지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행함에서 주어지는 만족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것을 원하지 않고 묵은 것만 좋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보다 자기 실천으로 누리는 쾌감과 즐거움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에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오셨고 또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의 나라에 어울리는 것이 자기 실천을 내 세워서 타인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인지, 또한 자기 자랑과 자기 우월을 나타내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어울리는 신자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 79편은 시편 속의 애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슬픈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시편임을 생각해 보면 웬지 시편에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79편도 77, 78편에 이어서 아삽이 쓴 시인데 그 내용들이 환난에 대한 것으로 가득하고, 오늘 79편도 이방민 족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것을 두고 노래한 것을 보면 순탄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고,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다면 성경, 그리고 시편으로서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삽의 시를 보면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희망과 소망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 예루살렘이 황폐화 된 것으로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겪은 비참한 상황에 대해 호소하고 있지만 그 마지막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는 말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키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슬픔으로 시작한 노래가 감사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삽이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슬픔의 상황에서 감사를 얻게 되는지에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기쁨으로 가득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편을 쓴다고 해도 그 시작은 슬픔과 탄식과 호소일 것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슬퍼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삶이 앞으로도 어떻게 얼마나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삽이 비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되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슬픔의 자리에서도

주일오우설교

시 79:1-13

주의 이름을
위하여

(83강 7.22일 설교)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4절까지를 보면 ‘지금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호소하는 탄원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민족의 시체를 새의 밥이 되게 하고, 땅의 짐승에게도 주었다고 합니다. 피가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러도 시체를 매장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엄청난 살육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혹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렘 7:33절에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절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겪게 될 환난에 대한 것임을 생각해 보면 아삽이 호소하는 환난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할 때 대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구출해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잘못된 신앙으로 징계를 받아서 환난에 처해졌지만 환난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환난을 물러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뻔한 스토리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의 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의 반전이 없습니다. 77편도 보면 아삽이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셔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다고 말합니다.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아삽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더 많이 기도해서 기어코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삽은 자신의 잘못을 아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삽이 깨닫게 된 자기 잘못은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79편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한 환난과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노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의 상황에서 영원히 주께 감사하는 노래를 할 수 있게 한 비밀은 13절의 앞 구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라는 내용에 있습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비록 유다가 이방 나라로 인해서 극심한 환난을 겪으며 하나님이 어디 있는

냐 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즉 환난이 더 이상 유다가 주의 백성이 아니고 주의 목장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삽으로 하여금 슬픔의 노래가 감사의 노래로 끝나게 하는 힘이고 근거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자가 환난과 어려움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환난에서 건짐 받는 것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양이라면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에 우리를 환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감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거의 모든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50년의 포로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유다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모든 것이 원상복구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유다를 환난의 길로 밀어 넣으신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죄는 이방 신을 끌어 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신을 끌어 들인 것은 자신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 줄 신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삶의 형통에서 신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롬 8: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환난과 박해와 기근과 위험 속에서도 불변의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환난에서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게 되면 실망과 낙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기회도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를 조롱을 받는 상황까지 나아간다고 해도 신자가 알아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들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환난과 힘든 일에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이 있음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며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아삽의 이 기도는 ‘우리가 힘드니까 구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건지시고 죄를 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조롱을 받고 있으니 자신들을 건지심으로 주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 일에 참여된 것이 주의 백성, 주의 목장의 양으로 부름 받은 신자입니다.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해서 때로는 자기 백성을 어려움과 환난의 길을 걷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자기 인생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관계에 확고히 자리할 때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자는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입니다.

수요일설교

렘 15:1-9

유다의 위기

(41강 7.18일 설교)

유다의 신앙 상태는 한마디로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선지자가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유다는 자신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신앙의

위기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신들의 심각한 함에 대해 눈치를 채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에 반발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고 말합니다.

출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노를 돌이키신 일이 있습니다. 또 민 14장에는 가나안 정탐꾼 열 두 사람 가운데 열 사람이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역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을 곤경에서 건져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해도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14:11절의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말과도 그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유다를 향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떠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단호한 말씀이 1절의 내용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대로 하자면 유다는 큰 신앙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예고되어 있

고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자신들의 위기를 깨닫고 회개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말씀을 전파하시고 죄를 책망하시면서 권고하셨지만 유다는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를 배척합니다.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없다’ 는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없다’ 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 문제없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로 나와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니가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말이 듣기 싫은 것은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다’ 는 것 자체가 거짓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문제 있음을 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거나 자기 이름과 영광에 마음을 둔다면 죄인이라는 고백이 곧 형식이고 위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될 뿐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됴므로 나아가자니라 하셨다 하라”** 고 말합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죽을 자고, 칼을 받을 자고, 기근을 당할 자며, 포로 될 자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아닌 다른 모든 길은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칼과 기근과 포로 됴므로 나아가는 길일뿐입니다. 즉 우리의 본질에 따른 운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에는 하나님

의 별만 가득할 뿐입니다. 3절에서도 **“여호와와 말씀이나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쫓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라는 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유다에게 넘치는 것은 하나님의 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일 뿐 다른 것은 그 무엇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신앙 행위도 포함됩니다. 나의 어떤 신앙 행위도 바라보지 않고 잘 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행하심에 구원과 복의 근거를 두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았다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도 그것이 길이 아니며 의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알하심이 나에게서 그 같은 행함이 맺어지게 했을 뿐입니다. 이런 생각이 살아 있다면 자기 행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야말로 신앙에서 벗어난 것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흠으리라”** 고 말합니다.

므낫세가 행한 것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흠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일월성신을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이방신의 제물로 바치고 점치고 사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에 폭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이런 행보가 말해주는 것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신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별로 가득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할 때는 흠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었다는 것 때문에 흠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 같은 위기를 깨달으며 온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향하기 바랍니다.

■ 오전예배 ■

11시 / 인도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 다 함 께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298장
교 독 : 85(1요4장)
기 도 : 이영민 장로
찬 송 : 348장
성 경 : 눅 5:33-39
말 씬 : 복음에 어울리는 것(22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456장
교회소식 : 이영민 장로
찬 송 : 5장
축 도 : 설 교 자

■ 오후예배 ■

3시 / 인도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 다 함 께
찬 송 : 300장
기 도 : 송재관 집사
찬 송 : 421장
성 경 : 시 82:1-8
말 씬 : 주의 소위(86강)
기 도 : 설 교 자
찬 송 : 305장
주기도문 : 다 함 께

■ 수요일예배 ■

7시 30분 / 인도 신윤식 목사

예레미야 강해(44강)

■ 교회소식 ■



다음주 기도

오전 - 이성희 장로 오후 - 최두임 집사

중국 방문기②

전도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끓는 육수에 야채와 버섯을 넣고 조금 후에 양고기를 살짝 담갔다가 먹는데 처음 먹어보는 양고기 사브사브는 입에 착착 감긴다는 표현이 어울릴 맛이였다. 염소나 양고기는 특유의 향이 있는데 그런 향은 전혀 느끼지 못했고 목사님 말씀처럼 육질은 쇠고기보다 부드러워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씹을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육수는 역시 중국 특유의 향신료 맛이 느껴지긴 했지만 이전 거부감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색다른 맛에 혀가 점점 길들여지는 것 같다. 양고기가 두 접시 쇠고기(안심이었던 것으로 기억)가 한 접시였는데, 양고기를 먹고 쇠고기를 먹어 보니 역시 양고기가 훨씬 부드러웠다. 대구에서 양고기 전문 식당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아마 돌아가서도 이 맛을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거의 모든 방들은 손님으로 가득하고 담배연기로 희뿌연다. 그리고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중국인은 식사하면서 담배를 즐겨 파우고, 식사 시간도 길고, 대화가 시끄러울 정도라고 하더니 우리나라 식당에서였다면 눈살이 찌푸려지다 못해 제재를 받았을 정도였다. 물론 그 또한 그들의 문화이니 좋다 싫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이질적 느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도 복음 안에서는 그런 이질적인 요소들도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관심과 마음으로 인해 함께 하고 같은 기쁨을 공유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〇〇씨와 헤어지고 돌아오는데 아무래도 시장에는 가볼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곳은 가족 제품이 많이 싸다고 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조금은 아쉽다.

집에 돌아오니 전도사님이 이것저것 선물을 내어 놓으시는데, 차의 나라답게 차 몇 가지와 차를 우려먹기 좋도록 되어 있는 물병, 고사리, 몽골 지역에서 생산된 압축된 우유 등을 푸짐하게 주신다. 받고서도 미안한 마음에 뭘 이렇게 많이 주시느냐고 사양을 했지만 전도사님은 또 다른 물건을 가져와서 마음에 들면 가져가라고 하신다. 맥반석으로 만든 된 컵이라고 하는데 한 눈에 보기에도 값나가는 물건 같아서 목사님도 나도 이미 주신 것으로 충분하니 그것은 전도사님 가지고 계시라고 만류하는데도 전도사님은 '뭐 또 드릴 것 없냐' 라고 하신다.

그런데 사모님도 내일 함께 한국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면서 같은 비행기인지 목사님께 확인을 하는데 출발 시간은 같은데 항공회사가 다르다. 우리는 아시아나인데 사모님의 항공권은 중국 회사다. 나는 항공권 회사가 다르니 당연히 비행기도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항공권은 달라도 비행기는 같을 수가 있다고 하신다. 왜냐하면 항공회사도 비행기에 승객을 많이 태울수록 이익이기 때문에 회사가 서로 협약을 해서 한 회사의 비행기를 이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역시 오래전부터 선교를 하시던 본인지라 외국을 많이 다녀서 그런지 견문이 넓다는 생각이 든다. 전도사님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사모님은 아들도 만나고 고향에 가서 친지들을 만날 계획으로 약 2주 정도 한국에 계시실 거라며 고향 친지들이 부탁한 것을 싸느라고 바쁘게 움직이신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은석교회 예배당 사진을 보고 있는데 혹시 내 아이패드도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이쉽게도 예배당 사진을 아이패드에 따로 저장해 놓은 것이 없어서 사진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간 아이패드로 은석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예배당 사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다. 그래서 사진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아이패드를 가져와 은석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했다.